

2012 10.14 연중 제 28 주일

제 1 독서 : 지혜서 7,7-11 <나는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제 2 독서 : 히브리서 4,12-13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복 음 : 마르코 10,17-30 <가진 것을 팔고 나서 나를 따라라.>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2 독서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수 없습니다. 그 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어떻게 셈을 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일상 생활속에서 전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냉담중인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형편이 되면 나오겠다고 하십니다. 성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공동체에 필요하여서 어떤 봉사를 부탁하면 때때로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느님은 찌끄러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쓰고 남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받는 성령칠은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물불 가리지 않고 추구합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시간이 있건 없건 간에 아랑곳 하지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그분을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 하고 있는지? 그냥 그분께 별받기가 두려워서 따르고 있는지? 오늘 이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칼과도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 **복된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선조를 보십시오. 세계 어느 교회를 보아도 우리의 선조들처럼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생각하며 목숨까지 바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간이 나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 다른 복음서에서는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교육을 철저히 받은 부자 청년일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어려서부터 외우게 하고 십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을 축약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계명입니다. 첫째부터 세째 계명까지는 하느님을 온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네째부터 열째까지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그 단계까지는 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고 하셨을때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내 이웃을 온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요? 히스페닉 공동체에서는 한인 공동체를 모두가 엘리트요, 부자요, 하이클라스로 여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여김을 받아도 될만큼 엘리트 답게, 부자답게, 하이 클래스 답게 살고 있는지요? 재산을 버리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자존심,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자존심,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나는 왜 상처를 이웃에게 줘니까, 또한 나는 왜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한국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온 악습중의 하나는 겉치레입니다. 없는데도 있는척! 왜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바로 그 겉치레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세상에 별거승이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즐길줄도 알아야 합니다. 곳간에 아무리 쌓아놓아도, 다 쓰지도 못하고 때가 되면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젊은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바리사이들도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외심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그분이 무서워서 그분께서 내리시는 벌이 무서워서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모두 핑계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될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초능력 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그 분께 모든것을 맡겨 보십시오. 별거벗고 맨몸으로 태어난 우리! 손해를 보더라도 밀질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겨드릴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힘인 초능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7,7-11

7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8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9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10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11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12-13

12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13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을 팔고 나서 나를 따라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30<또는 10,17-27>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0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28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2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